

# 새해 첫날 SM표 '광야' 활짝 열렸다

무료 온라인 콘서트 'SMCU 익스프레스'  
강타·보아부터 에스파까지 불거리 풍성  
태연·슬기 등 유닛 '갓 더 비트' 첫 무대

2022년 새해 첫날 SM엔터테인먼트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광야'(KYWANGYA)의 문이 활짝 열렸다. 강타·보아부터 NCT·에스파까지 K팝 한류를 선도하는 선배 가수들이 가상공간에서 한데 모여 호랑이의 해 초록을 썼다. 바로 SM엔터테인먼트가 1일 오후 1시 개최한 무료 온라인 콘서트 'SM타운 2022 : SMCU 익스프레스'에서다. 이 콘서트는 유튜브를 비롯해 '비온드 라이브' 글로벌 플랫폼,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LG U+ 아이돌라이브 앱·웹 등으로 무료로 생중계됐다.

공연은 SM엔터테인먼트가 상정한 가상의 공간 '광야'의 'SMCU(SM Culture Universe) 익스프레스 스테이션'에 소속 가수들이 모두 모인다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지난해 데뷔한 걸그룹 에스파의 세계관에 등장해 관심을 끈 '광야'는 개별 그룹의 스토리를 넘어 SM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메타버스(가상세계)의 결정체

인 셈이다. 이날 공연은 광야로 떠나는 기자 기장으로 분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시작을 알렸다. 그룹으로서의 SM엔터테인먼트 최고 참인 동방신기가 히트곡 '마이진진'으로 포문을 열었다.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한 이 무대는 신년 첫해가 떠오른 이날 오프닝곡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이어 신예 에스파가 데뷔곡 '블랙 맘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박동을 이어받았다. 에스파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을 배경으로 '넌 광야를 떠돌고 있어'라는 가사처럼 시청자를 '광야'로 인도하는 듯했다.

에스파 지젤은 "2022년에는 마이(에스파 팬)들과 눈을 맞추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고 말했다. 통상 온라인 콘서트는 공연장에서 생중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날 공연은 100% 사전 녹화로 제작돼 매번 다른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펼쳐져 풍성



히트곡 '넥스트 레벨'을 부르는 걸그룹 에스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한 불거리를 제공했다. 또 노래 안무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소속사의 자체 공연인 만큼, 포인트를 포착해내는 카메라 워크의 수준이 높아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규현·윤유·태일은 분위기 있는 상투리에 아래에서 '오디너리 데이'로 가장력을 뽐냈고, 키와 태연은 기자와 역을

배경으로 감각적인 듀엣 무대를 꾸몄다. SM엔터테인먼트 최고 선배인 강타는 상징적인 흰 의상을 입고 야외에서 H.O.T. 2집 수록곡을 재해석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2021'을 열창해 팬들을 추억에 잠기게 했다. 공연에서는 NCT 드림 '헬로 퓨처'·'맛', NCT 127 '페이보릿'·'스티커',

에스파 '넥스트 레벨'·'새비지' 등 지난 해 큰 사랑을 받은 히트곡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보아는 9집 타이틀곡 '우먼'으로 여전한 춤 실력을 과시했고, 7집 타이틀곡 '온리 원'에서는 까마득한 후배 NCT 쇼타로와 커플 댄스로 호흡을 맞췄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여성 가수로 이뤄

진 신 유닛 갓 더 비트(GOT the beat)도 베일을 벗었다. 대선배 보아를 비롯해 태연, 효연, 슬기, 웬디, 카리나, 윈터 일곱 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이날 처음으로 신곡 '스텝 백'을 공개했다. 특히 이 유닛은 가수 보아가 2000년 데뷔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참여한 팀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갓 더 비트는 휘몰아치는 속사포 랩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춤꾼인 보아·효연·슬기의 댄스 브레이크에 이어 태연의 고음 애드리브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스파가 S.E.S.의 명곡을 재해석한 SM타운 겨울 음반 더블 타이틀곡 '드림 스킴 트루'도 이날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특유의 몽환적인 멜로디 위에 에스파만의 힙합 느낌이 더해져 원곡과는 또 다른 에너지를 뽐냈다. 메인 공연은 보아의 '베터', 동방신기의 '캐치 미'에 이어 H.O.T.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SM타운 겨울 음반 더블 타이틀곡 '빛' 뮤직비디오로 막을 내렸다. 이후에는 DJ 효, 레이든, 긴조, 히치하이커 등의 DJ 공연이 이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연 콘셉트를 집대성한 무대로, 장기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전 세계 팬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무료 공연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호랑이 기운으로 K팝 달굴 신인은?

케플러·JYP 등 루키들 새해 출격 코앞  
"확실한 목표 있어야...글로벌 팬덤 중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2022년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루키'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 2022년 호랑이해를 빛낼 새내기 보이 그룹과 걸 그룹들은 새해 벽두부터 출사표를 내민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7인조 그룹 트렌드지(TRENDZ)는 이날 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 음반 '블루 셋 챕터 1. 트랙스'(BLUE SET Chapter 1. TRACKS)를 발표한다. 트렌드지는 하빛, 리온, 윤우, 한국, 라엘, 은일, 예찬으로 이뤄진 신인 보이 그룹이다. 멤버들은 팀명이 확정되기 전 '인터보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BTS, NCT U, 스트레이 키즈 등 K팝 선배들의 무대를 따라 한 커버 영상을 잇달아 공개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소속사 인터파크뮤지컬플러스는 "신인 보이 그룹으로는 보기 드물게 초대형 무대 스케일을 선보이고 콘서트 못지않은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와 연출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세대 대표 아이돌'을 노리는 걸 그룹들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999'를 통해 결성된 케플러(Kep1er)는



걸그룹 케플러

/웨이브컴·스웱엔터테인먼트 제공

3일 오후 데뷔 음반 '퍼스트 임팩트'(FIRST IMPACT)를 공개한다. 케플러는 꿈을 잡았다는 의미의 'Kep'과 아홉 명의 소녀가 하나로 모여 최고가 되겠다는 뜻의 숫자 '1'을 합친 의미를 담은 그룹으로, 앞으로 2년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앞선 오디션 시리즈와 비교하면 방송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는 높지 않았지만, 한국·중국·일본 출신의 연8생들이 모인 덕분에 멤버들은 일찌감치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데뷔 전인 데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는 140만 명에 달한다.

4인조 걸 그룹 하이키(HI-KEY)는 '애슬레틱 걸'(Athletic Girl)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민다. 데뷔 싱글 '애슬레틱 걸'은 힙합 트랙으로, 내면의 강인함과 자존감을 가꾸 나가는 하이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국내 대형 기획사들도 가요계를 이끌어갈 신인 그룹 준비에 한창이다. 윈더걸스, 미쓰에이, 트와이스, 있지(ITZY) 등 걸 그룹 성공 신화를 써 온 JYP엔터테인먼트는 다음 달 새 그룹을 선보인다. 지니, 지우, 규진, 설윤, 배이, 해원, 릴리 등 7명으로 구성된 걸 그룹은 유튜브

채널 'JYPn'을 통해 연습 모습과 게릴라 라이브 영상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팬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정판으로 내놓은 이들의 '블라인드 패키지' 음반은 열흘 동안 6만1,000여 장이 팔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이브의 독자 레이블 '어도어'(ADOR)는 올해 '민희진표 걸그룹'을 출격시킬 예정이다. 과거 SM 엔터테인먼트서 '아이돌 콘셉트 장인'으로 명성을 얻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걸 그룹은 2019년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멤버를 중심으로 기획된다. 가요계에서는 올 한해 신인 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 보고 있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지난해 11~12월 데뷔한 신인들도 올해 본격적으로 달려 나가는 시기로 삼고 활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평론가는 "이제는 음반이 얼마나 팔리고 차트에 오래 있느냐가 아니라 영상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글로벌 팬덤이 어느 정도인지 등 인기를 가늠할 척도가 다양해졌다. 신인 그룹일수록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 사극 로맨스 '웃소매...' 17.4% 종영

탄탄한 서사·배우들 호연 매회 시청률 갱신

'산덕커피'의 애절한 사극 로맨스 '웃소매 붉은 끝동'이 17%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부터 연속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16회·최종회 시청률은 각각 17.0%, 17.4%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5%대 시청률로 출발한 '웃소매 붉은 끝동'은 정조와 의빈의 역사적 기록을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킨 탄탄한 서사와 배우들의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며 매회 자체 시청률을 갱신했다. 드라마는 주제적인 삶을 꾸꾸는 궁녀

성덕임(이세영 분)과 성군이 되고자 하는 왕세손 이산(이준호)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냈다. 왕과 공녀라는 신분 속애에서 진심을 숨기면서도 서로를 향한 애절한 감정을 밀도 높게 전한 이세영과 이준호의 열연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여성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 주던 기존의 사극과 달리 궁녀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덕임의 캐릭터도 신선함을 더했다는 평가다. '웃소매 붉은 끝동' 후속작으로는 국세청 조세 5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임시안, 고아성 주연의 '트레이서'가 7일부터 방송된다. /연합뉴스

## '놀면 뭐하니?' 지난해 수익금 17억 기부

MBC 예능 '놀면 뭐하니?'가 지난 1년간 방송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17억여원을 기부한다. MBC는 '놀면 뭐하니?'의 제작진과 유재석 등 출연자 뜻에 따라 2021년 말력 판매금, MSG워너비 음원과 앨범 판매 등으로 획득한 총 17억1,000만원을 11개 단체에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기부금에는 탁구선수 신유빈이 라켓중년단(유재석, 정준하, 하하)과의 미션으

로 획득한 기부금 1,000만원 등도 포함됐으며, 신유빈 선수의 출연료 전액을 더한 총 2,000만원을 대한탁구협회에 기부했다. 나머지 기부금 16억9,000만원은 안나의 집, 한국소아암재단,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밀알 복지 재단, 세이브러 칠드런, 동방 사회 복지회, 지파운데이션, 함께하는 사랑밭, 법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환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3일 (음력 12월 1일)	
<p>48년생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60년생 사랑과 친절은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 72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84년생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다.</p> <p>52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64년생 생 먼저 양보하면 그 이상의 보답을 받는다. 76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88년생 난감한 일이 생긴다.</p> <p>44년생 당연히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야 하는 법이다. 56년생 욕심은 적당히 부려라. 68년생 오랜 답답함이 풀린다. 80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p>	<p>49년생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6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73년생 만족하면 행복하고, 불만족하면 불행하다. 85년생 책 속에 해결책이 있다.</p> <p>41년생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험난한 날이다. 53년생 마음 상할 일이 있겠다. 65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7년생 급속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p> <p>45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공돈이 생긴다. 57년생 하나를 주면 둘을 얻는다. 69년생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81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을 일 없는 날이다.</p>	<p>50년생 속상했던 일이 해소된다. 62년생 운기가 상승하니 소원 성취한다. 74년생 사랑과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6년생 정다운 친구가 밀리서 찾아온다.</p> <p>42년생 모든 일에 우선하여 건강을 챙겨라. 54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를 보겠다. 66년생 어차피 할 일이라면 불평 없이 해 버려라. 78년생 잘난 척 말라.</p> <p>46년생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 58년생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70년생 난감한 일은 순리에 맞게 처리하라. 82년생 세 번만 참으면 살인도 변한다.</p>	<p>51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63년생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낸다. 75년생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87년생 가끔은 싫은 일도 해야만 한다.</p> <p>43년생 우유부단하면 손해를 보겠다. 55년생 먹을 것 없는 제사가 절만 한다. 67년생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79년생 능력을 인정받는다.</p> <p>47년생 구설수가 있겠으니 조심하라. 59년생 운세가 좋아지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문서관리에 주의하라. 83년생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다.</p>		